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거룩한빛
광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
NEW
YEAR
VOL.53

정성진 목사 신년사

2025년 새해는 ‘꿈꾸는 자의 해’

신년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 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2025년



윤보영
· 시인
· 대전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 당선
· '커피도 가끔은 사랑이 된다' 등 시집 19권 발간

새해에는

윤보영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행복을 나누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서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그 소식에 내 기쁨이

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미소 짓는 모습을 꺼내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기억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주는 향기보다, 꽃이 가진

생각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밖에도

1년 내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내 삶에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Kwangsung Special

06
신년사 I 정성진 목사
2025년 새해는 ‘꿈꾸는 자의 해’

08
신년 인터뷰 I 광승현 위임목사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 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2025년

13
2024 선한 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소식
해외 선교사 5인의
내 생애 최고의 사역 한 컷

18
The 희망나눔 I 신철승 집사
복음 담긴 수어,
또 다른 세계 열려

Issues & Trend

21
세대 갈등을 세대 공감으로 바꾸는 소통법
I 심윤섭

24
세대 간 소통! ‘세대 공감’으로 첫걸음을 내딛다
I 이종완

꿈꾸는 다음세대

38
꿈담 I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39
꿈담 I 초등1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요

40
꿈담 I 중등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한 제자훈련

44
꿈담 I 고등부
간식 들고 학교 찾아가는 목사님과 학생들

66
HOT ISSUE I 청년부
거룩한빛광성교회 1청년부 셀 리더 인터뷰

68
빛나는 이름, 청년 I 김요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

2025 특별기획

44
한국교회와 여성 I 임희국
여성, 이름 없는 무명(無名)의 존재에서
이름 가진 유명(有名)한 사람으로

문화 & 참여마당

76
갤러리 I 황인녀
어느 날

77
우리 교회 뮤지션 I 김형수
2부 성가대 팀파니 연주자 정용수 집사

78
우리 결혼했어요 I 김한나
네 명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는 활기찬(?) 집

80
여행 I 고예민
여유로운 새해, 따뜻함과 함께 경복궁에서 시작

82
추억의 광성 I 김진욱
밤가시 시대를 열다

83
이벤트 I 최정애
손주 3남매와 눈

크로스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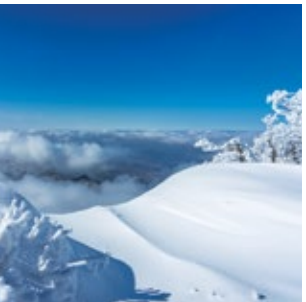
84
크로스로드 I 손민준
알파 코스 개설과
정성진 목사님 한국기독교대상 수상

겨자씨.

2025 NEW YEAR
VOL.53



표지 사진
[덕유산 설경] 박해준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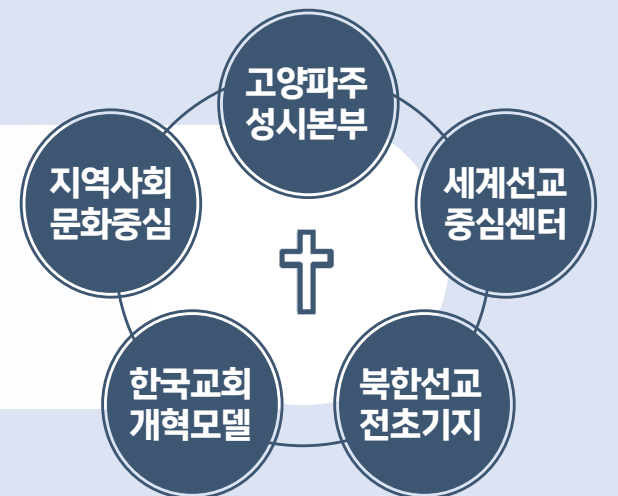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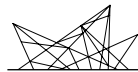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2025년 새해는 ‘꿈꾸는 자의 해’

글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 대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밝아야 할 세상, 새해의 전망이 몹시 어둡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환경이 몹시 어렵습니다.

2025년 예측 트렌드 중에 목사의 설교 영향력은 떨어지고 그 자리를 미디어, 그중에서도 유튜브가 채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튜브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선과 악이 갈라지게 되는 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이단 정보, 퇴폐적 영상을 막고 선용할 수 있는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깊이 있는 평신도 중심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평신도 중심 사역과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는 두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재 신학교 정원이 미달되고 교회들은 부목사, 전도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심방, 새가족 교육, 교육부 설교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교역자에 준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미래 교회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한국은 노인 인구가 최초로 20%에 도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와 자원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 예배부의 신설, 노아스쿨의 확대 및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때 교회는 더욱 다이내믹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접받고 노는 노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갈렙과 같은 어른들이 되도록 뒷받침할 때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더욱 깊은 영성으로 섬기고 성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들의 지혜와 경륜, 교회 성장을 경험했던 영적 자산을 충분히 발휘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의 진수를 전달하고 계승하는 위대한 어른들이 되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를 건축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중축을 계획하여 다음세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꿈꾸는 자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꿈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 NEW YEAR
Kwangsung Special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3>





곽승현 위임목사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 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2025년

글 전영의 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의 옷을 갖추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을 권면하는 곽승현 위임목사

2025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로 정한 곽승현 위임목사는
중점 사역으로
‘시니어 세우기’, ‘공간의 문제 해소’,
‘다문화 사역 확장’,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 실시’
4가지를 밝혔다.

2025년 교회 표어를 정하며

담임 6년 차, 거룩한빛광성교회 1기 목회를 일단락 짓는 2025년 곽승현 위임목사는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로 정했다. 성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3).

곽승현 위임목사는 교회 표어를 정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AI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며 다가오는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현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올해 곽승현 위임목사의 목회 방향은 ‘교회 안’을 향하고 있다. 지난 5년 ‘선교’, ‘작은교회 세우기’, ‘나눔’ 등 교회 안의 사랑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고군분투했다면 올해는 교회 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돌볼 생각이다.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 임기는 6년이다. 교회는 6년 주기로 ‘담임목사 재선임 투표’를 실시한다. 2020년 담임으로 첫발을 내디딘 곽승현 위임목사는 올해 그 임기가 끝난다. 1기 목회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가장 합당한 사역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곽승현 위임목사는 ‘교회와 교인’에 주목했다. 그동안 교회도, 교인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전력 질주했다. ‘내면 다지기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다. 더 높게 더 합당하게 비상하기 위해! 그 뜻을 2025년 교회 표어에 오롯이 담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025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중점 사역을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들어 본다



사역 논의를 위해 함께 자리한 곽승현 위임목사와 '꿈꾸는시니어팀'

1 시니어 사역 - '꿈꾸는시니어팀' 출범

올해 대한민국은 초고령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만 65세 이상이 20%를 돌파한다는 의미다. 교회의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기독교 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회 60대 이상 교인은 28.9%인 240만 명이고, 2050년에는 교인 2명 중 한 명이 60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몇 살부터 '시니어'인가? 그 기준은 여럿 있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만 65세를 시니어의 기준으로 삼고, 교회 내 시니어 수는 1,718명 정도인 것으로 계수하고 있다.

그동안 시니어 사역에 전문성을 투영하고자 노력해 온 곽승현 위임목사는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기쁨을 표했다. “올해 ‘꿈꾸는시니어팀’이 출범합니다. 시니어 전문 사역입니다. ‘꿈꾸는 시니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표어 아래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의 주도적 사역입니다. 시니어가 소속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꿈꾸는 노년을 구가할 수 있도록 ‘꿈꾸는시니어팀’이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규정은 만 65세부터이지만 희망하면 60세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시니어 예배 실시’, ‘공동체 프로그램 및 소그룹 운영’ 등이 있고, 인간이 노년에 직면하는 ‘건강’, ‘고독’, ‘죽음’ 등의 이슈를 밀도 있게 다루며,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고, 훈련할 계획이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인 3월 30일, 2부 예배는 특별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예배다. 바로 ‘시니어 예배’로, 찬양 인도, 사회, 말씀 낭독, 설교, 안내 봉사 등 예배의 전 과정을 시니어가 주도하는 것이다. 시니어 예배는 5주로 이루어진 달의 5주차 주일 2부 때 진행되며, 2025년에는 3월, 6월, 8월, 11월로 총 4회, 2026년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확대할 방침이다. “꿈꾸는시니어팀은 시니어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노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풍성하고 더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라고 곽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2 공간의 문제 해소 - ‘온세대교육관’ 건립

거룩한빛광성교회 공간 부족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2005년 8월 지금의 자리에 건축된 교회는 어느덧 20년이 지나 시설은 노후화를 겪고 있고, 사역은 세대, 성별, 연령, 기혼, 미혼, 나이, 관심사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위원회가 조직돼 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온세대교육관’을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청년세대와 3040 세대의 활발한 사역,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리모델링 및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은 곽승현 위임목사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바다.

‘온세대교육관 건립 사역’ 위원장 정호석 장로는 “온세대교육관은 교회 본관 건물 뒤편에서 기도굴 방향 쪽으로 일자 모양의 단층 건물로, 교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세대교육관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 공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스리랑카 선교 때. 곽승현 위임목사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돌입하고 있는 작금 '가는 선교' 못지 않게 '국내 외국인 선교'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일 11시 '캄보디아예배팀'의 예배. 캄보디아인인 잔디 전도사가 캄보디아어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한다

3 다문화 사역 - 다문화 선교의 허브로

거룩한빛광성교회에는 다양한 외국인 예배팀이 있다. 다문화선교위원회 산하에 베트남예배팀, 태국예배팀, 캄보디아예배팀, 열방예배팀이 있다. 매 주일 베트남인 30여 명, 태국인 30여 명, 캄보디아인 17여 명, 열방인(영어권, 미국, 필리핀 등) 40여 명이 거룩한빛광성교회 각 예배실에서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예배팀’이 세워져 매 주일 캄보디아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또 감사하게도 몽골인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어요. 올해는 ‘몽골예배팀’이 생길길 기대합니다. 다문화예배팀 10개가 세워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곽승현 위임목사는 매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250만 명에 이른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피력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선교’는 해외로 직접 가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250만 명에 이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덧 다문화 국가에 돌입하고 있어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세우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선교위원회에서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학교’ 운영, 출입국관리 업무 지원, 생활 보조 등 다방면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및 정착을 돕고 있다. 또 고양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선교의 나루터로서, 나아가 세계 다문화 선교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4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 실시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전투 장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이며, 기독교인은 왜 전신에 갑주를 갖춰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을 의미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춘 후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악'에 대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느 해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광승현 위임목사가 유독 정성 들이는 프로그램이 있다.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다. 전 교인이 1주에 한 구절씩, 1년 52주 동안 총 5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날이 녹슬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날이 녹슬거나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마귀를 향해 언제든 지 성령의 검을 번쩍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릴 틈타지 못하고, 우리 또한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매주 성경 1구절씩 암송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삶에 심어 승리의 나팔을 불기 바랍니다."

올 연말 '성경암송대회'를 열어 암송 우수자는 시상할 계획이다.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면서 광승현 위임목사가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권세를 따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광승현 위임목사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한다.



52주 52구절 성경 암송 프로젝트

- 일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방법** 매주 성경 1구절, 1년 52구절 암송
- 목적** 전 교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한 해 만들기
- 혜택** 연말 성경 암송대회 열어 우수자 시상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4 선한 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추수감사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8,520,000원
	다문화		
	노인		
	장애인		
	비밀언덕	자립 준비 청년 지원	9,984,520원
	청년	청년창업 지원	440,000원
	환우	환우 가정 지원	3,789,000원
	지역 교회	지역 교회 지원	3,530,000원
교인 지정			15,700,000원
부서, 선교사, 형제교회 지정			12,960,000원
타 교회, 타교인 지정			12,242,020원
금홍 구제 사역			52,846,600원
합계			120,012,140원

2024 선한 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통해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1억 2001만 2140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 보냈습니다.

해외 선교사 5인의 내 생애 최고의 사역 1컷



다시 시작된 캠퍼스 사역

글 박배관 선교사(과테말라)

작년에 개척한 CUM 캠퍼스는 의과대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멈췄던 캠퍼스 사역은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CUM에 첫 열매가 맺힌 후 올해 USAC, UMG 2개의 캠퍼스가 더 개척되어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간사 팀을 나누어 3개의 캠퍼스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CUM 캠퍼스 담당 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과테말라 의과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학년 유급을 합니다. 그만큼 학년을 올라가기 어렵고 같은 학년을 몇 년째 다니기도 합니다. 작년에 만난 학생들도 유급과 실습으로 많이 캠퍼스를 떠나서 사역을 다시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관계자가 저희 선교 활동을 제한하여 모임 장소를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듯 그 통보를 받던 현장에서 한국어에 관심 있는

Marvin이란 학생을 만났습니다. 실망감이 들던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기독교에 열린 마음이었고 그 후로 저희 모임에 꾸준히 나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일 곳이 없어 학교 운동장 가장 후미진 곳에서 캠퍼스 모임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학생들이 계속 연결되었습니다. 특별히 Marvin이 많은 크리스천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 학생들이 우리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비록 모임 장소도 없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임 때 고틀말라를 위해, 캠퍼스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며 큰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며 캠퍼스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글 제이든 & 송울 선교사(아랍에미리트)

안녕하세요? 아랍
에미리트에서 사
역하고 있는 제이
든 & 송울입니다.
현지인 친구와 함
께 두바이에서 시
작한 한국문화클

을 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에서 사
역하고 있는 제이
든 & 송울입니다.
현지인 친구와 함
께 두바이에서 시
작한 한국문화클

이 모임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 문화를 매개로 하여 성경적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KC는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송울이 UKC를 통하여 다양한 중동 국가 출신들 여성들과 맺은 우정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의 제한되고 억눌린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중한 숨과 호흡으로 전해져서 그녀들이 변화하고 언젠가 모두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토착교회 하나 없는 이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과 후원이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큰 위로가 되기에 감사의 마음 역시 전해드립니다. 사진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세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럽 'UAE Korea Chingu(UKC)'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중 하나인 두바이의 인구는 10% 현지인(에미라티)과 90%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수를 이루는 외국인들은 세계 각국 200여 나라 출신들입니다. 세계 민족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한국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국문화클럽이 2023년에 생겼고, 1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약 290명 가량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UKC는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임마다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 및 한국어 교육

អរគុណដែលបានមកជាអ្នកផ្សព្វផ្សាយសាសនានៅកម្ពុជា។
캄보디아 선교사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한창욱선교사(캄보디아)

♪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

젊은 시절, 예배 때 이 찬양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입을 다물었던 아내 최영미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18년째 현지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무엇이 고난이었으며, 어떤 일들이 행복이었을까?

연중 덜 덥거나 더 덥거나 할 뿐인 나라에서 흐르는 땀을 흘리며 사역에 정진하면서 그나마 숨을 고르며 환한 미소 한번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 때문이 아닐까!

អរគុណសម្រាប់ការធ្វើបេសកកម្មនៅកម្ពុជា

어꾼 썸무랍 까 트버 빼싸까쫓 너으 감쁘찌어

사진 속에 쓰여진 캄보디아어 문구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



선교 10년 차 맞이했던
생일날 받은 액자 속 문
구는 선교사가 현지인 아
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으며, 우
리를 웃게 만드는 선물
이었다.

그동안 그렇게 삶과 사역의 의미와 웃음, 고통을 함께 주었던 학사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제 늘어난 주름살과 꺾인 무릎으로 남은 사역의 부르심에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 아이들로 인해서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MKLC 사역 첫 클래스 수료식

글 한준수 선교사(미얀마)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10년 차 협력 선교사 한준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사진이 제일 먼저 생각났고, 이 사진을 내 생애 최고의 사역 1컷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선교지에 와서 4년이 지나 실질적인 MKLC 사역을 시작하면서 맞은 첫 번째 클래스 수료식 장면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왔습니다. 와서 이미 오래전에(20년 정도) 오셔서 사역하고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랫동안 사역을 할 거라면, 초기에 언어 공부를 잘 해두는 것이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 언어 공부를 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사역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양곤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학과에 들어가 4년(B.A) 동안 사역을 전혀 하지 않고, 언어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 왔는데, 어학 공부만 하고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언어 자체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1학년 때는 몇 번 현지어는 안 되니까 높은 실력은 아닌 영어로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졸업 후에 바로 한국어 학원 MKLC를 시작했습니다. 한 클래스로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복음

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전하지는 못 했지만, 기독교와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보내 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받을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왔는데, 4년 동안 언어 공부만 하던, 마음적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지낸 후 시작한 실질적인 사역의 첫 열매라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사역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은 미얀마에 있는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고, 2명은 한국에 유학 중이고, 1명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고, 1명은 외국인 근로자(이주 노동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세례

전남 여수 세포리의 세포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필리핀 세포미선교회 두 번째 세례식은 Calatagan(little boracay)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12명 세례자가 세포미선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는 필리핀에서 개신교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었던 자,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깊은 상실과 절망을 경험한 자, 또 젊은 아내를 오랜 암 투병으로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하루하루를 술에 절여 살면서 허망함을 느끼다 하나님을 찾게 된 자,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고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던 자 등 여러 가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한자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례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물량 공세가 완전히 끝난 이후 외국 선교사가 이끄는 지역교회는 필리핀 특유의 느린 속도에 맞추어 서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2명으로 천막에서 시작한 세포미선교회는 지금 100명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22명의 세례자를 얻었습니다.

Giveaway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몇백 명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 보여주거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교회의 멤버들은 참으로 ‘찐 멤버’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마을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2. 퀵바디스 도미네? 개척?

사도행전 외경인 베드로행전에 기록된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가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에게 개척은 전방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또한 능동적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글 이진우, 조정빈 선교사(필리핀)

발생합니다. 타지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낯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찌는듯한 날씨와 입에 맞지 않은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까지. 타지에서의 경험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닫힌 방'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대사로 ‘소셜 애니멀’로서의 인간의 가장 밑바닥 실존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적응력의 부재로 실패하는 개별적 사례들은 충분히 있지만 소위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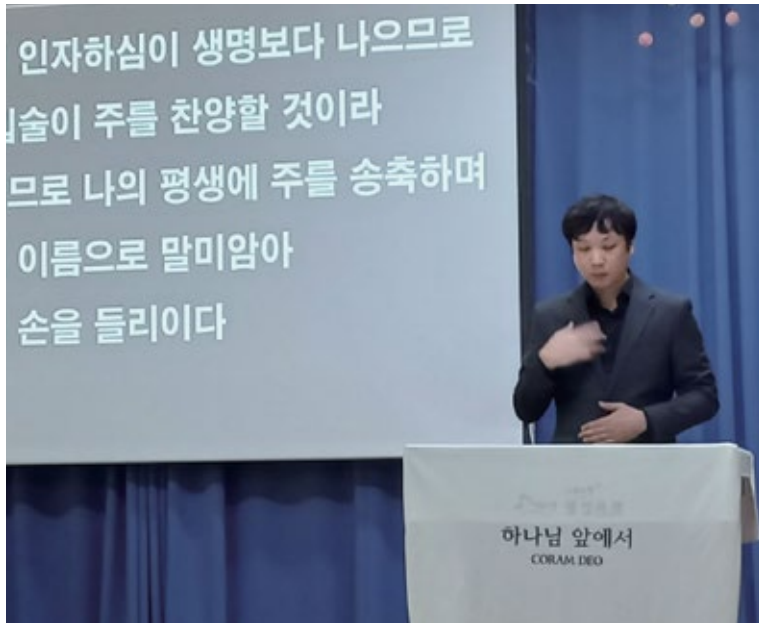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상기하면서도 내면의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섬나라에서 여러 개척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3명의 어린 자녀(6, 8, 12세)들을 업고, 손잡고, 울며 한 간다고 떼쓰는 아이들을 타이르며 한 달 동안 여러 섬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주로 차에서 쪽잠을 자고, 이동 중에 Traveler’s inn이 보이면 거기서도 잠을 잤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6시간이나 걸려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었을 때 배에 올라탔지만 오버 부킹으로 배에 준비된 침대가 1인 2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첫째와 둘째는 아래 침대에 비좁게 누웠고, 종일 운전한 저와 막내는 아이의 요람같이 작은 침대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얼굴과 발,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고, 잠이 들기 전 막내는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질문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야,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수어 찬양의 청일점, 신철승 집사

복음 담긴 수어, 또 다른 세계 열려

글 전영숙 기자

《 주일 오후 1시 농인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신 집사

각 나라, 민족마다 그들만의 언어라는 게 있다. 농인들에게도 ‘수어’라는 멋진 언어가 있다. 수어 또한 전 세계 200여 개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법정 공용어가 한국어와 수어 2개라는 걸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수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신철승 집사를 만나보았다. “아직 멀었어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상태인걸요. 지난해 3월 첫 수어 찬양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떨었던지.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배우는 것과 실제 대화는 정말 달라요.”

수어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 중 유일무이한 청일점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신철승 집사. 사실 그는 수어 통역사이자 수어 강사로 맹활약 중인 함형숙 집사와 부부지간이다. 하지만 수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롯이 신 집사의 결정. 아내는 그 어떤 권유도 하지 않았다고.

농인부에 힘쓸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다가 2019년부터 농인부를 섬기고 있는데 농인들의 대화에 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수어 공부였다. 수어를 도통 모르니 농인들이 뭔가 물어볼까 봐 눈도 못 마주치고 못 알아듣는데도 대충 아는 척했다가 무시했다는 오해를 받기 일쑤였다. 게다가 듣지 못하니 문자도 익히지 못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농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 수어 공부에 불을 지폈다.

“찬양이나 설교 때 수어 통역하는 것을 보면서 듣지 못하면 글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오는 농인 분들 중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70%예요. 일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극소수라 오후 1시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농인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어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어를 배우면서 비로소 농인들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신 집사. 그저 집만 들어주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전에는 지방에서의 직장 생활로 피곤하다 보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농인들이 만나면 몇 시간이고 얼굴 맞대고 수어를 하는 것이 오해를 풀기 위한 소통의 대화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졌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수어 중급과정에 들어가면서 솔직히 어려워요. 단어만 보다가 맥락을 봐야 하니까요. 근데 수어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가 넘쳐요. 수어 표현에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사인언어(Sign language)인 수어가 하나님의 사인처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손바닥에 못 자국 내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자신의 수어를 보면서 농인들이 은혜받았다고, 수어가 많이 늘었다고 해줄 때 힘이 된다는 신 집사. 수어를 잘 못해도 서툴러도 노력하는 모습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왕 시작한 거, 신 집사의 목표는 수어 통역사 자격증 취득이다.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원주수어센터에서, 토요일엔 광성평생배움터에서 배우고, 틈틈이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교회 내에 수어 통역사가 14명이나 되는 덕에 신 집사를 키우고자 하는 권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2년 후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전문가인 아내는 5년은 해야 제대로 소통할 거라고 엄포를 놓기도. 사실 수어 찬양과 설교 통역은 레벨 자체가 다르다. 조기 축구와 국가대표 축구 차이라 할 수 있는 것. 연습과 노력이 더해져야 가능한 일. 제대로 못했단 농인들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다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기에.

단순히 찬양이나 말씀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의 삶 전체를 돌봐줘야 하기에 농인부에서의 섬김이 그리 녹록지 않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라는 신 집사는 오는 2월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하는 캄보디아 선교를 떠날 예정이다. 캄푼에 새로 개척하는 농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농인과 청인,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올해는 장애인사역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은 것은 물론, 사랑청년 1부를 섬기면서 새로이 창단된 ‘카포레트 워십팀’의 찬양자로 매월 2, 4주 수요일 ‘사랑의빛 찬양집회’를 섬길 예정이라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원주에서 일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농인부를 섬기고자 청인들이 와도 얼마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수어 가능한 이들이 필요하다는 신 집사는 요즘 토요일마다 수어를 함께 배우는 청년들이 귀하디 귀하단다. 영어보다 쉽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함께해 주길 고대한다. 또 다른 회의가 있어 가봐야 하는 신 집사를 보내면서 대화를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웠다.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토를 달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1. 농인과 청인이 함께 드린 예배 특송
2. 농인부 수련회 참석자들과 함께
3. 5주 차 예배 때 수어 찬양으로 섬기지만 늘 연습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신철승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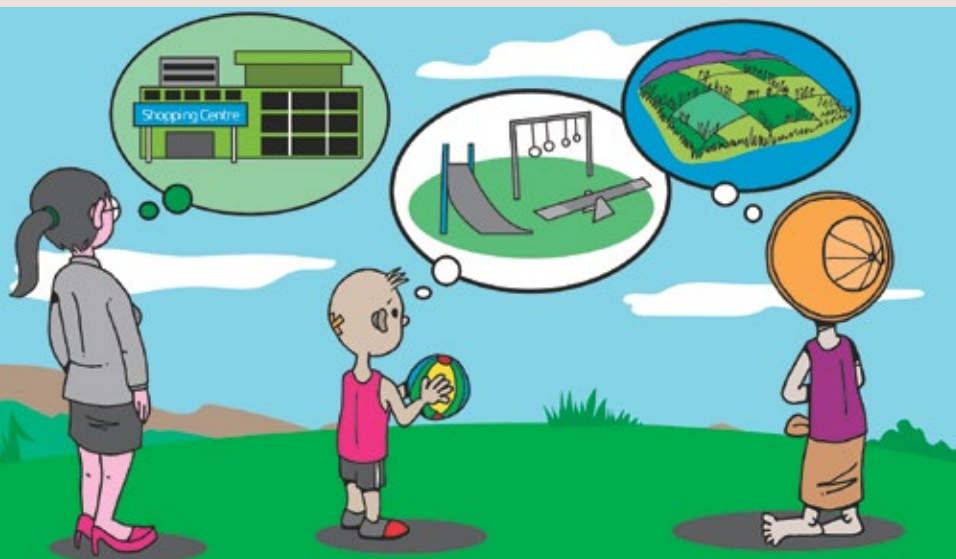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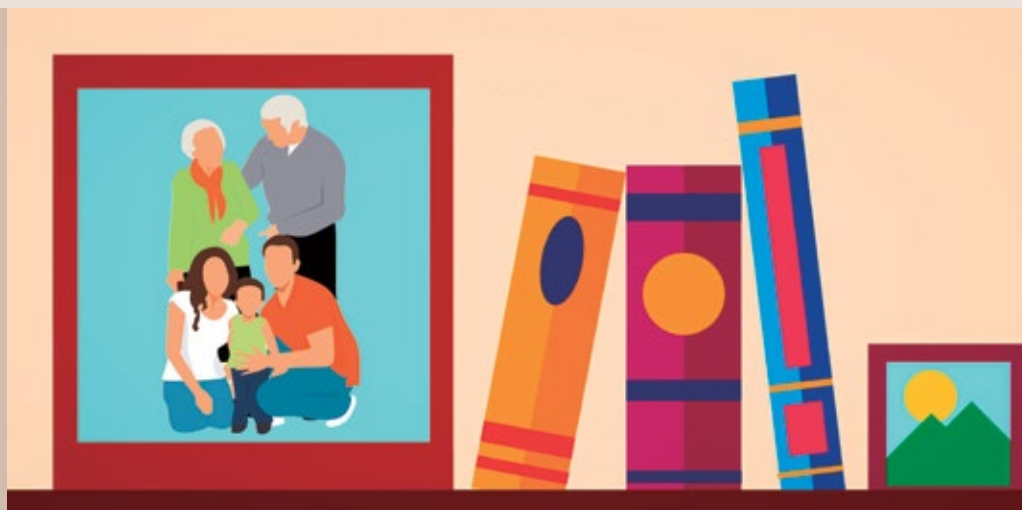
ISSUES & TREND

세대 갈등과 세대 공감

I

세대 갈등을 세대 공감으로 바꾸는 소통법

글 심윤섭



II

세대 간 소통! '세대 공감'으로 첫걸음을 내딛다

글 이종완

세대 갈등을 세대 공감으로 바꾸는 소통법

글 심윤섭 작가(『행복한 일터의 조건』 저자)



다들 알만한 이야기이다. 5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점토판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점토판에 수메르인들이 상형문자를 새겨 넣었는데 고고학자들이 내용을 해석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5천 년 전에도 세대 차이는 불편했던 모양이다. 차이가 있는 한 갈등은 필연이다.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세대별 특성, 그리고 세대 구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자. 그리고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을 수록했으니 일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대 차이 발생의 이유

세대 개념은 칼 만하임(Mannheim, 1952)이 기여한 바가 크다.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기 출생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 역사적 경험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쉬우므로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세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세대 갈등이라고 한다.

60세 이상의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는 MZ세대의 가치와 다르다. 6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빈곤 탈출과 성실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20~30대를 주축으로 하는 MZ세대는 가난한 시대에 출생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이자 중진국인 시점에 태어났고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가난보다 개인의 성향과 자율성을 제한받는 상황이 더 끔찍한 일이다.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별로 공유하는 사회·문화·역사적 경험의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별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등은 세대별로 각각 차이를 만들어 낸다.



세대 구분의 기준과 세대별 특성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알파 세대까지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생), X세대(1965~1980년생),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2012년생), 알파 세대(2013~현재) 등으로 세대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세대 구분도 이를 기초로 한다. 시대 상황에 대한 차이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1950~1955년생부터 정의한다는 점 외에는 대체로 비슷하게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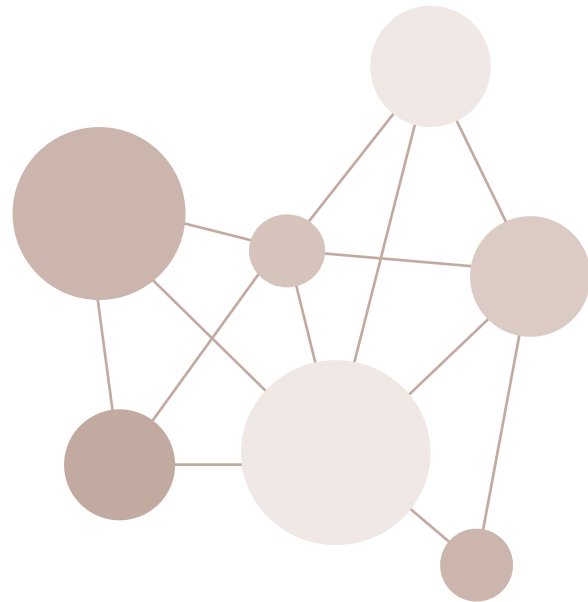
세대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세대 별로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것과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요약해보자. 베이비부머는 근면성과 국가발전, X세대는 탈권위와 자립,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주의와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는 비디오 퍼스트와 심화한 개인주의, 알파 세대는 AI와 자기중심성이다. 부연하자면 Z세대는 손안에 동영상을 수시로 보는 세대라서 비디오 퍼스트(video first)라고 하며, 알파 세대는 AI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을 불편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세대이다.

세대 구분의 문제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의 출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다. 학자에 의해 정의되거나 학계에서 정리된 것도 아니다. 여기저기서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하고 그 중 어느 하나가 인기몰이가 되면 그것을 범용으로 사용하는 형국이다. MZ라는 용어만 봐도 그렇다. MZ세대는 놀랍게도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콩글리쉬이다. 세대 구분에 대해 그나마 질서가 잡힌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대 구분에 좀 더 민감하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IT 기술의 발달, 타문화를 습득하고 소화하는 역량이 뛰어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변화된다. 그래서 10년 정도의 나이 차이만으로도 가치관과 행동 특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세대 구분에는 문제점이 있다. 세대를 정의하는 용어가 오히려 세대를 더욱 분리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근거 없는 세대 구분과 용어의 남발은 세대 화합이라는 긍정적인 목표와 거리가 멀다. 얼마 전 MZ 조폭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세대 구분의 문제점을 크게 느꼈다. 젊은 조폭이나 20대 조폭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MZ를 붙여서 굳이 MZ 조폭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실천법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대 공감을 돕는 대화 기술의 부족은 대화를 어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든다. 크게 두 가지 유용한 실천법을 소개한다.

첫째, 관심 기반의 대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라떼가 아니다. 바로 나 중심의 대화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불편하다는 점이다. 대화가 상대방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에 관한 관심이 절대적이다. 세대 상호 간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의 최근 이슈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관심 기반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최근에 축하할 일이 생겼거나 위로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이 충분히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나에게만 관심이 많고 타인에게는 관심이 거의 없다면 대화는 시작되기 힘들거나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담백한 관계 지향

목표가 너무 거창하면 안 된다.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있는 세대 간 소통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신세대는 끈끈함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담백한 관계를 선호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오해가 발생한다. 신세대는 끈끈한 연대를 명분으로 과하게 다가오는 사람보단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사람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신세대와의 교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갈 때 누구보다 스스럼이 지낼 수 있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 소통! ‘세대 공감’으로 첫걸음을 내딛다

글 이종완 안수집사



고도의 산업화와 1세대 가족 중심의 생활, 더 나아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과거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대 간 갈등은 존재했으며, X세대 역시 기존 세대와의 갈등과 이해 상충, 트렌드에 대한 공감 부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에도 세대 간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은 존재할 것이며, 이에 ‘세대 공감’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져야 하고 기본 소양으로 체득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기업에 근무하는 이종완 집사입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신입사원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생활해 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모양의 성향 및 성격을 겪으며 저 또한 함께 성장해왔다고 봅니다. 회사 내에서 승진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성취감과 권한, 업무역량은 커지고 강화되는 반면 그만큼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소통과 이해는 또 다른 회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 어떤 조직보다 협업과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집단이기에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또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간 갈등과 이해 부족 등을 얘기할 때면 ‘MZ 세대’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거론됩니다. ‘MZ 세대’는 디지털 친화성(스마트폰, SNS,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개인주의적 성향, 자신만의 취향과 가치 존중, 체험 중시 및 브랜드 선택이나 소비 시 본인의 신념을 반영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세대들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MZ 세대’와 함께 회사 생활을 하며 과거의 나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점과 회식을 직원 간 친목 도모의 장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견, 대면보다 메신저나 채팅을 더 편안해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점, 업무 시 자신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에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성향 등을 볼 때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 회사에서는 MZ 세대가 회사 조직문화에 잘 스며들고 기성세대와의 간극을 좁히며 회사의 신선한 바람과 혁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신입사원부터 입사 7년 차 이내 직원들로 구성되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개선’,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MZ 세대의 트렌드를 기업문화에 잘 접목하고 동료 및 직장 상사, 선배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교육 시 ‘MZ 세대의 직장 생활 밸런스 게임’을 통해 조직문화에 조기 적응하고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의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우선 저보다 윗세대를 먼저 이해하고 왜 그분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을까를 되새기며 저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와는 우선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세대 간 벽 허물기를 합니다.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계기를 마련해야 조직 일체감과 소속감 강화에 도움이 되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 간 소통 방법으로 ‘신뢰 쌓기’와 ‘세대 공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바탕에 거룩한빛광성교회의 ‘국내선교위원회 직장사역팀’에서 회사와 일터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서로가 경험을 나누며 믿음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있다고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대 간 이해와 소통, 배려를 배우기 위해 매일 아침 회사 책상에 붙여놓고 읽고 있는 얀테라 게인(Jantelagen) 10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얀테라 게인(Jantelagen) 10가지 원칙

-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 우리를 비웃지 마라.
-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주장만 하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인간 관계

세대 간 소통!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세대 공감을 키워나가면 더 나은 사회가 되고 더 조화롭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체력, 가족, 그리고 열정

글 김현준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10교구)

안녕하세요. 10교구와 세계선교위원회를 섬기는 김현준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추위와 함께 서서히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길가의 나무들도 잎을 떨구어 앙상한 가지만 남겨 둔 채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겨울의 한 가운데서도 온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열정으로 가득 찬 목회자입니다. 열정 있는 목회자는 신앙과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데우며,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파합니다. 저는 주님의 따뜻한 온기와 같은 복음을 기쁨과 열정으로 전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과 육이 강건한 목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신앙생활에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이루는 것은 사역의 지속성과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여 지치지 않고 섬김을 지속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길입니다. 영적 강건함은 기도와 묵상, 말씀을 통해, 육적 강건함은 규칙적인 운동과 자기 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강건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전하는 목회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내 김유정 사모, 세 자녀 지훈, 지우, 지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새벽예배 후 하고 있는 성경 필사

영성: 목회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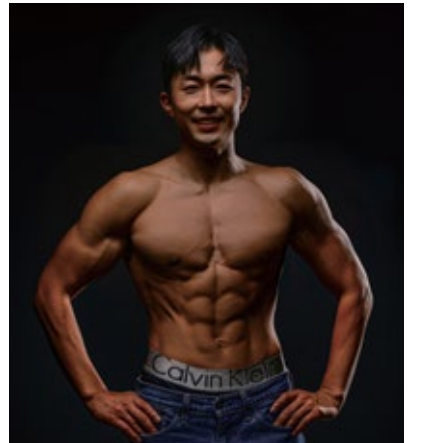
먼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성입니다. 목회자는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깊고 굳건할수록 그 사역에 힘이 생기고, 교인들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기도와 묵상, 성경공부 등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양식을 꾸준히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 사역을 지탱하는 힘

체력은 목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자의 일과는 일반적으로 매우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설교 준비, 장례, 심방, 상담, 봉사 등 수많은 활동을 소화해야 하기에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이는 사역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지면 영적인 충만함과 사역의 열정 또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은 장기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디프로필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될 때 목회자는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교인들을 섬길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바디프로필 촬영



6학년 지훈이와 함께 제주도 자전거 종주 인증 사진

가족: 사랑과 지지의 힘

마지막으로 가족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대이며 심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랑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자, 사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어 목회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사역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사랑과 위로를 얻습니다.

영성, 체력, 가족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목회자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세 요소입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체력 관리에 더욱 힘쓰게 되며, 가족이 든든히 버텨 줄 때 목회자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영육이 강건한 목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중보기도팀



글 고예님 청년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주일 2부 예배 중보기도팀장으로 6년, 중보기도위원장으로 2년을 섬긴 기도의 용사 문옥녀 권사에게 ‘중보기도팀’의 사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중보기도팀의 문을 두드리세요.

1 중보기도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중보기도팀은 ‘기도하는 팀’입니다. 예배, 교회, 사역, 교인들의 요청 기도 등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팀입니다. 중보기도위원회 안에는 여러 기도팀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이 있고, 각 팀은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일 기도팀으로는 ‘1부 예배 중보기도팀’, ‘2부 예배 중보기도팀’, ‘3부 예배 중보기도팀’, ‘4부 예배 중보기도팀’이 있고, 1부에서 4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각 부의 중보기도팀이 교회 본관 B1에 위치한 두손모아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중보기도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기도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믿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 없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때 다 함께 가는 것을 원하셨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중보기도팀이라는 기도 공동체를 세워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 변화 등 특별한 경험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4부 예배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대라서 적은 인원으로 중보기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적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 사람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기도 상황에 나아갔더니 40명의 추가 구성원이 생겼습니다.



주일 1~4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두손모아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1. 예배, 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2. 중보기도위원회 주일 특송



4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나요?

각 부서 중보기도는 부서 예배 시간에 맞춰 두손모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모이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도가 끝납니다. 주일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전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하고 싶을 때, 따로 절차가 있나요?

중보기도를 드리는 두손모아 내부에 ‘119중보기도’와 관련된 함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는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고 ‘119중보기도함’에 넣으면 됩니다. 기도 카드를 확인한 119중보기도회팀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6 119중보기도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19중보기도팀은 교인들의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속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시간 상관없이 기도가 필요할 때, 119중보기도팀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119중보기도팀원들이 합심하여 기도의 등불을 밝힙니다.

7 중보기도 대상자의 인상 깊은 간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한 권사님의 자녀가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속상했지만 딸에게 아기를 낳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중보기도위원회팀에 기도 요청을 했어요. 중보기도팀원들은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기도가 응답 되었어요. 딸이 아기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딸은 현재 아기를 가진 상태예요. 다음세대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8 앞으로 중보기도팀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실 건가요?

김경희 중보기도위원회 위원장 :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보기도팀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옥녀 권사 : 기도로 더 합심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일 1~4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두손모아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2025 나의 원포인트업

One - Point - Up



가족과 함께 글 김지윤 학생(초등5)

가족과 함께 여행 많이 하고 싶어요.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것과
새해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실력 쌓기 글 김승현 학생(초등2)

축구선수,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통일되면 북한 친구들에게 축구와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싶어요.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형 자녀가 되고 싶어요 글 최은우(중3)

새해가 되면 모두들 그 해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하나씩 만들곤 합니다. 물론 세워 놓고 이루지 않는 경우, 세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까먹는 경우 등등으로 인해 결국은 소원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해만큼은 절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하며 다시금 새해 소망을 적어 놓죠. 2025년 새해에는, 반드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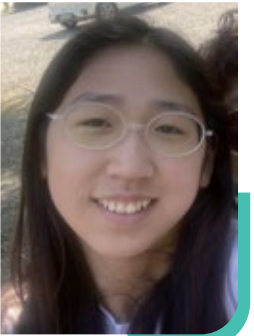
제 새해 소망은 '계획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MBTI 검사를 하면 J(계획형)가 한 번도 나와본 적 없었던 저는 꼭 일을 마치고 난 뒤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깜빡 놓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몇 번이나 되새기게 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 원래대로의 저로 돌아와 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저 또한 주도적으로 공부 시간을 분배할 나이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계획을 짜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더 이상 시간에 쫓기며 사는 제가 되

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엄마의 스케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막상 제 스케줄을 엄마만 알고 저는 모르는 일도 몇 번 있어서, 그때마다 혼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에서 썩어가는(?) 스케줄러를 보며 조금 죄책감을 느낀 적도 많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홀로 설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제가 더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더 이상은 엄마와 아빠에게 의지하며 살 수만은 없으니까요. 착실히 세운 계획을 통해, 더 나은 저 자신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최은우가 되자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광성교회의 모두, 나아가 세상의 모두가 이번 해보다 좋은 다음 해를 지내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글 임하영(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예수 믿는 청년 임하영입니다.

2025년 물리치료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새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국가고시는 제게 단순히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제가 진정한 물리치료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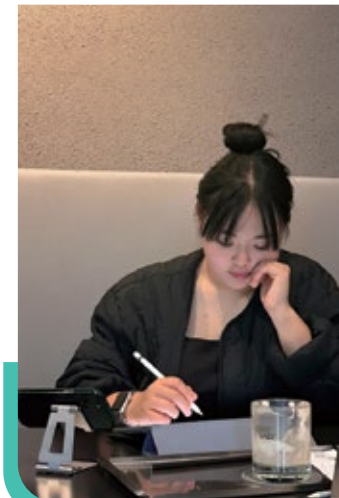
국가고시 합격을 통해 저는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했음을 증명하게 되며, 이는 제가 신뢰받는 물리치료사로 나아가는 첫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즐겨

봤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저는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고,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팀 닥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팀 닥터는 운동선수들을 컨디셔닝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고시 합격은 팀 닥터로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현재 저는 스포츠 의무지원 활동을 통해 팀 닥터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실습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제 꿈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저의 힘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공부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저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도록, 제가 원하는 길이란 하나님께서 뜻하는 길로 인도해주시도록 말기찬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물리치료 국가고시 시험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캄보디아예배가 두 살이 되었습니다 글 잔디 전도사(캄보디아예배팀)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캄보디아예배가 두 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캄보디아예배팀에 처음 부름을 받고 기대에 부풀어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예배에 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배우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운동도 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온 형제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고양과 파주에 사는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목포에서 올라와야 해서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하지만, 토요일을 이용해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찾아 나서며 전도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양과 파주 지역에 사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러닝크루 한번 해 볼래요? 글 정성욱 안수집사

“러닝크루 한번 해 볼래요?”

6월 초여름 날씨 속에서 광성드림 아버지학교 행사를 진행하던 중 한 스텝이 내게 던진 말이다. 러닝크루는 내게 낯선 단어였지만 일단 러닝동호회 정도로 받아들이고 크루가 결성되면 참여해 보겠다고 했고 8월 여름휴가 때 정말 연락이 와서 나의 러닝은 시작되었다. 사실 조깅, 러닝, 걷기 등은 나와 가깝지 않은 단어이다. 나는 아침저녁 운전하며 출퇴근하니 언제나 하루 걸음 수가 1~2천 보 사이였고, 주말에도 뛰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8월 3일, 무척 더운 토요일 새벽 6시. 평소 신던 운동화에 반바지를 입고 크루에 나갔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바로 뛰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나는 3Km를 못 뛰고 낙오했다. 굉장히 어지러웠고 심지어 구토 증세까지 겪어서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러닝크루는 러닝 후 식사를 함께하는데 힘들어서 그런지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왕 시작한 것, 일단 계속해 보기로 결심하고 다음 주에 나가서 5Km를 뛰었는데 첫 주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남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나는 평일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집에 오는 상황인지라 러닝은 크루가 모이는 주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러닝 양을 늘리기 위해 출근하여 와이셔츠를 입고라도 무조건 러닝하기

로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구두를 신은 채 매일 1~3Km를 회사 주변에서 달렸다. 8월에 17회 러닝 27Km, 9월에 40회 러닝 159Km, 10월 39회 러닝 146Km를 달리면서 차츰 기량이 향상되어 매 주말 크루에서 코스완주를 이뤄낼 수 있었고 가을에는 10Km 단축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해냈다.

2025년에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나에겐 역시 러닝이다. 아직 초보 러너 이른바 런린이지만, 2024년 한여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러닝을 통해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나와 내 주변에 러닝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2025년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글 송재현 안수집사(온누리교회)



나이 70이 넘도록 살면서 타성에 폭 젖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문득 떠오르는 게 여럿 있다. 그중 하나가 나의 믿음 생활이다. 40대 중반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열정으로 불타오르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썼다. 50대와 60대 중반까지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과 아픔,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그들을 섬긴다고 동분서주했다. 그렇지만 60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는 육체적인 노화, 질병 등으로 이유로 삶의 목표가 희미해지고 방향 없이 헤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나의 안락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습관적으로 매일 읽고, 새벽 기도회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금방 타성에 빠지곤 한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QT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적용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싶다. 나를 위한 기쁨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로서 존재하고 싶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라하실 때, 평강과 기쁨으로 그분께 가고 싶다.



▶ 새해에 바라는 것 글 김은숙 권사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가정이야말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인 나가이 다카시(1909~1951)는 1945년 8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서막인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그에게 헌신적으로 내조했던 아내를 잃은 비극을 맞았다. 그로부터 6년을 더 살았던 그도 방사선의 장해를 입어 원자병에 걸린 채로 연구실에서 연구와 치료에 매진하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난 삶을 회상하며 쓴 수필에서, 내게 절실하게 공감되었던 부분이 떠오른다. 그가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주일 아침 모두 함께 예배당에 가는 때였다고 회상한다.

“나는 큰아이의 손을 끌고 아내는 작은아이를 업고 발독길로 언덕 위 빨간 벽돌 예배당으로 간다. 종각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종소리가 맑고 부드럽게 울려 퍼진다.”

얼마나 리얼하게 형상화된 아름다운 풍경인가!

나에게도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주일이면 삼 남매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세우고 걷기에는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다. 아이들도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우리 아이들이 무대에 오른 연극을 즐겁게 관람했고 어린이 찬양대에 선 아들과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집 안에서는 항상 서로 질세라 그 주일에 배운 찬송가를 연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성장하여 음대에 들어간 딸은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이면 홀로 쓸쓸하게 교회에 다녀온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왜 몰랐을까! 어느새 다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그들은 점점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그 시절로 돌아가다 함께 예배드리러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되찾았으면 하는 것이 새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4점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사를 바친 아브라함



‘성경 컬러링 이벤트’ 선정작 4점

지난 호 이벤트 ‘바벨탑’ 색칠하기에 참여한 작품 중 4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하늘까지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을 안 통하게 하셔서 서로
짜증내는 표정을 보았어요. 색칠을 끝내고
나니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정지윤(거룩한빛광성교회 초등3부)



“색칠을 하면서 성경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은혜도 듬뿍
받았어요.”

박예준(거룩한빛광성교회 초등3부)



“AI로 그림을 색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도해 봤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그림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전하진(거룩한빛광성교회 초등5부)



“비신자인데 이번 기회에 바벨탑
관련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김연재

Gérard David (c. 1460-
"The Flight into Egypt")

« 애굽 피난길의 성모자 그림에
바구니가 놓여 있다



«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가족이 덧대어 있다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점

글 김종식 관장(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한국말로는 광주리나 바구니나 소쿠리나 그게 그거다. 굳이 따지자면 소쿠리는 넓적하고, 광주리는 큼직하고, 바구니는 속이 깊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구니와 광주리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개역성경도 이를 잘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한된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두 번 행하셨다. 오천 명을 먹이신 곳은 벳새다로 유대인 거주 지역이고, 사천 명을 먹이신 곳은 호수 동편의 어느 이방인 지역이었다.

유대인 지역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남은 빵을 ‘코피노스(바구니, κόφινος)’에 거두었다(마 14:20, 16:9, 막 6:43, 8:19, 눅 9:17, 요 6:13).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남은 빵을 ‘스푸리스(광주리, σπυρίς)’에 거두었다(마 15:37, 16:10, 막 8:8, 8:20). 예수님은 그 후에도 ‘바구니’와 ‘광주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셨는데,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코피노스)이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스푸리스)이던 것을 기억 지 못하느냐(마 16:9~10)”라고 말씀하셨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은 빵을 담은 ‘코피노스’는 정결 음식을 담은 유대인들의 도시락 바구니이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 일 길을 가려면 이런 구별된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고 남은 떡은 일곱 ‘스푸리스’에 담겼다. 이때의 그릇은 정결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이 아무 물건이나 담던 광주리였다.

World
Christian Museum
of Korea

www.segibak.or.kr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 꿈.담 ≦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글 정은숙 기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노래하는 우리 아이들. 사랑을 듬뿍 주실 준비가 되신 선생님들과 말씀을 기억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고 붙이는 공과 활동을 하는 유치부 친구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기도한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이 순수한 아이들 속에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유치부 어린이들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목상해본다.



1. 말씀 암송하는 7세 형님들
2.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3. 매월 첫째 주 축복의 주인공들 생일축하
4. 말씀 암송하는 6세 아우들

≧ 꿈.담 ≦ 초등 1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요

글 정은숙 기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닮아가며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1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 찬양, 말씀, 기도

초등 1부의 목표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은 찬양과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전한다. 아이들이 성경책을 펼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은 초등 1부 예배 시간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찬양 시간에는 아이들이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 제 마음 속에 오세요!” 라고 기도한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는 마음을 울린다.

2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야외 예배와 주일 활동

아이들이 함께하는 기쁨을 배우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는 야외 예배는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어노는 시간이다. 낙하산 놀이를 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힘을 합쳐 낙하산을 올리고 내리며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주일 예배 후 진행되는 생일잔치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3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어린이: 성경을 배우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제자들로 자라가고 있다. 주일예배 후 공과 시간에는 서로 짝을 이루어 성경을 찾아 읽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친구와 함께 성경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볼 수 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초등 1부 김시은 전도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2025년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전했다.



≡ 꿈.담 ≡ 중등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한 제자훈련

글 태경환 학생기자

종횡무진
믿음의 청소년



2025년이 시작됐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작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중등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되돌아보니 아쉬움만 남는다. 작년 가장 후회한 일은 하반기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작년 중등부 후반기에 '종횡무진 믿음의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하반기 제자훈련을 진행했다. 총 22명이 '목적'이라는 주제로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최재욱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에 대해 배웠고, 세 분 선생님의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간증을 들었고, 마커스 집회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마지막으로 강화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강화도 땅에 하나님이 전하신 사실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적'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중등부 학생의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왜 제자훈련을 신청했는지 묻자 "제가 광성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랐는데 제자훈련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덧붙여 강화도 기독교 박물관 선생님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꼈다고 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중등부에서는 여러 차례 제자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어느 장소에 가서 직접 '목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이런 훈련이 처음이었던 만큼 많이 힘들었겠지만, 참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목적'할 수 있는 경험이었음이 분명했다. 나도 가고 싶었지만 평일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못 갔는데 평일에 학교와 학원 등의 일정으로 바쁘고 피곤한 학생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여한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제자훈련 때는 나도 꼭 참여하고 싶다.



≡ 꿈.담 ≡ 고등부

간식 들고 학교 찾아가는 목사님과 학생들

글 최아인 학생기자

고등학생으로 주중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신 시험, 수행 평가, 모의고사, 생기부 등 챙겨야 할 요소도 많고 체력 또한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에 있는 자잘한 시간 동안 한데 모여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같은 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학원사역위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간식이나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진들은 모두 방성빈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음료를 사 들고 학교를 찾아가는 모습들이다.

물론 매일매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식량일 뿐이지만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새로운 씨앗이 다른 학생의 마음에도 피어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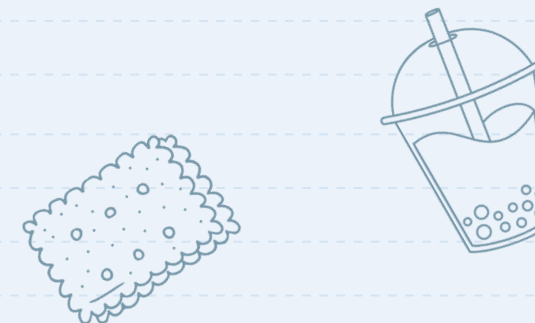
일산의모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음료를 전달한 방성빈 목사님과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을 한 학생들을 위해 음료를 구입한 방성빈 목사님과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음료를 받은 학생과 방성빈 목사님이 카메라를 보여 웃고 있다



음료를 전달한 목사님과 포즈를 취한 학생들



한국교회와 여성 ①

기획 김형수 기자

2025년 특별기획은 ‘한국교회와 여성’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여성 인권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많은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일상 은 말 그대로 신산(辛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신분 차별에 일제의 박해와 전쟁과 가난 이 더해졌던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땅의 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들을 어떻게 위로해주시고 함께하셨을까요? 올해, 특별기획 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여성들을 바로 세우신 역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1902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의 여성들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2024년 소중한 자료와 유려한 글로 평양 대부흥(각성 운동)에 대해 집필해주신 임희국 교수님께서 올해에도 귀한 글을 맡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 이름 없는 무명(無名)의 존재에서 이름 가진 유명(有名)한 사람으로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1 1902년에 있었던 여성 세례식

1902년 1월 한겨울이었다. 경상북도 대구 근처 팔공산 한재에서 선교사 브루엔(Henry M. Bruen)이 여성 1명과 소년 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아마도 이 지역 선교의 열매로서 첫 세례식이었을 것이다. 이때 선교 사는 세례받는 여성에게 ‘명성(明星, 밝은 별, 샛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례와 함께 이름을 지어준 사실이 -요즘에는 매우 의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이제까지 자기 이름이 없는 무명(無名)의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당시의 우리나라에서는 딸아 이에게 집안 호적부의 항렬에 따른 정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던 관습이 있었다. 그 시대에 딸아이는 그저 단 순히 집에서 부르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었다. 해묵은 관습에 따른 남녀 성차별이었다.

딸아이가 결혼한(시집간) 이후에는 아무개 “엄마”, 또 어느 “댁” 며느리로 불리었다. 그런데, 브루엔 선 교사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녀를 -이름 없는 무명(無名)한 존재로 살 던- 이제부터 정식 이름을 가진 유명(有名)한 존재로 거듭나게 했다. 선교사가 그녀에게 준 그 이름에는 당 연히 그녀를 향한 하늘의 소명이 담겨 있었다. 명성(明星), 곧 복음의 밝은 별로 살면서 그 별빛을 이웃에게 비추고 그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는 소명이었다.

1902년 경상북도 대구 팔공산에서 있었던 이 세례식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성의 의식 각성인 동시에 여 성에게 해방을 안겨주었다고 본다. 여성도 남성과 꼭 같이 ‘자기 이름을 가진(有名)’ 귀한 존재요 존귀한 인 간이라는 의식이 생성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꼭 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예수 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 20세기 초반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여성도 남성처럼 존엄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깨치게 되었다.



강에서 빨래하는 여성들

이러한 의식 각성은 그 당시 조선 시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의식이었다. 그러하기에 선교사 브루엔이 세례받는 여성에게 정식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여성을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근원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했다. 이제까지 여성은 집안(시댁)에서 자기 역할과 의무만 충실히 수행해야 했고, 그러하기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면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성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자각 의식이 생성되었다.

2 조선 시대 여성의 변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시대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설명하자면. 조선 시대의 여성 대다수는 가장권(家長權)이 절대화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회질서 속에서 살았다. 이 제도와 질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사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교적 통치이념인 충효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당연시되는, ‘사람의 권리(=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희박했다. 여성의 인권은 전혀 무시되다시피 했다. 결혼한 여성은 가족 구성원에게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여성에게는 시댁 집안에서 갖는 자신의 지위(며느리)와 이에 따른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역할만이 주어져 있었다. 여성(며느리)에게는 남아 출산을 통한 부계혈통(父系血統)을 유지하는(유지하게 하는) 의무와 조상제사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조상제사는 죽은 조상에게까지 확대된 효의 실천이었다.

이 시대 여성의 일상은 가사노동(시부모 봉양, 바느질, 직포 생산, 육아)과 밭일로 채워졌다. 여성 대다수는 지적인 활동에서 소외되어 학교 교육이나 학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다. 또 그 당시 엄격하게 지켜지던 내외법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눈과 귀는 바깥 세계로부터 차단된 채 -요즘처럼 대중매체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보고 듣는 일이 집안 울타리 안에서 맴돌았다. 이러한 일상과 관련해서, 여성의 세계관은 내 집안(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고 집안에만 가신(家神)들(예: 삼신단지, 지신, 성주단지 등)을 모셔놓고 가족의 안녕과 무사고를 비는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19세기 후반 관(官) 주도로 여성에게 변화의 불씨가 지펴졌다. 1894년 조선 정부가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이 개혁은, 비록 일본의 압력으로 피동적으로 수행한 개혁이긴 해도, 과부의 재혼(재가)을 허용했고 또 여성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조혼)하는 일을 국법으로 금지했다. 과부의 재혼 허용은 -갑오개혁에 앞서- 동학 농민군이 차별철폐(신분 차별철폐, 노비제도철폐 등)의 반(反)봉건 사회를 위해 내걸었던 개혁내용 가운데 일부였다. 갑오개혁은 조선이 봉건적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이것을 주도한 개화파 정권이 비록 자주적 근대 국가를 표방했지만 일본의 도움과 압력으로 추진했기에, 먼 훗날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국민(백성)의 이해에 따른 지지기반 없이 그들만의 이상 실현에 급급했다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갑오개혁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낱알의 ‘개인(개체)’으로 인정받게 되었고(예: 신분제도 폐지), 인간은 그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으며(예: 과거제도 폐지), 그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예: 서양 문명을 수용하는 통로인 서양식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체계적 학교 교육(=신식 학교)). 이렇게 인간 개인이 존중받게 되는 사회변혁 가운데, 과부의 재혼(재가) 허용은 젊은 과부를 일평생 수절을 강요받는 굴레에서 해방했다.



절구질하는 여성들

김장하는 여성들



마을 우물에서 물 길는 여성들



3 19세기 후반, 내한(來韓)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여성의 삶

1880년대 조선에 온 개신교(기독교)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 여성의 삶은 양면적이었다고 한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희생당하는 여성의 일상이 있는 반면, 동시에 여성 대다수가 매우 부지런하고 강인하며 유능한 자질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선교사 스크랜톤(어머니 스크랜톤)이 이화학당을 시작하면서(1886년 11월) “한국인(조선 여성)을 보다 나은 한국인(조선 여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조선 여성의 삶에 나타난 양면성을 인식했다.

선교사들은 가부장적 대가족 속 여성의 삶을 직시하면서 일부일처(一夫一妻)를 강조했고 또 조혼, 축첩, 여아 매매 등을 없애도록 권면했다. 이와 함께 선교사는 초신자 남성들에게 세례 문답을 하면서 반드시 “(당신은) 첩을 두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축첩이 죄악임을 깨우쳤다. 이 시기에, 교인으로서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윤치호, 서재필 등은 과부 재가 허용, 축첩 폐지, 여아 매매금지, 조혼 철폐 등을 사회윤리의 주제로 공론화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공성을 가진 공적 종교라는 점이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다.

또한, 20세기 초반 개신교 첫 세대의 여성에게는 신앙인이 되어 교회로 나오는 일 자체가 해방을 의미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집안의 담장을 넘어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했다. 교회 다니는 여성은 그때부터 엄격한 내외법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해방은 문맹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여성은 문자를 해독하게 되고 문맹에서 해방되었다. 이제까지 지식과 정보에서 차단되었던 여성이 이제부터는 글을 읽고 문맹에서 해방되어 세계관을 넓히고 자기 생각의 날개를 펼치게 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1897년 12월 31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남녀동등권’에 관한 토론회는 기성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깨트린 여성의 각성을 향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봉건적 가족제도와 사회질서를 깨고 나오는 여성의 해방보다도 더욱 근원적인 해방은 앞에서 설명한바 1902년 선교사 브루엔이 여성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름을 지어준 사건이었다고 본다.

경기 파주 교하 ‘라이프처치’

글 김용기 기자 사진 라이프처치 제공

생명을 살리는 움직이는 교회 ‘라이프처치’

“운동으로 선교합니다. 헬스하는 목사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으로 교회를 검색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시는 성도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유누리 라이프처치 담임목사를 만났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사역자를 거쳐서 거룩한빛운정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지난해 개척해 10개월여를 지내고 있는 새내기 개척 목사다.

평소에 ‘교회와 헬스장을 같이 열어 성도와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꿈’이라는 유 목사의 생각처럼 이번 만남도 단골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의 1층 찻집에서 이뤄졌다.

라이프처치는 고정된 예배 장소가 없는 움직이는 교회이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 목사는 개척 때부터 ‘교회의 장소보다 성도들과의 만남’을 선택해 개척지역을 선택했다. 라이프처치는 인터넷 공간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예배를 드린다. 주일에는 교회 성도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집회는 또 다른 성도의 사업장을 활용하고, 새신자 교육은 성도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하루도 빼놓지 않는 성경 묵상은 유 목사가 아침마다 설교 동영상 제작해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소를 중시하는 교회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를 선택한 성도님들은 매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을 옮겨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즐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 성도의 사업장 로비에 마련된 라이프처치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 헬스하며 생명을 전하는 유누리 담임목사



⌘ 주일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사업장에 십자가가 서 있다



⌘ 맛있는 점심 나눔



⌘ 미래세대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걸으며 삶을 나누는 성도들

전문적 헬스 지도가 최고의 전도 전략

개척 기간이 짧았지만, 안정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던 데는 운동이 도움이 되었다. 헬스대회에 출전해 1등을 했던 경험 이 있는 유 목사는 ‘헬스를 관계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해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한다. “현대사회에서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관심사예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살을 빼고, 근육을 늘리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 전도에 헬스만 한 게 없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유 목사는 헬스로 전도하면서 남성 성도들을 만나고 전도할 기회가 많아져 먼저 믿은 부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제공한 성도도 헬스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해 교인으로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기도와 예배 참여도 어렵게 된다는 유 목사는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혼의 건강을 전하기 위해 생명 존중의 교회, 라이프처치를 개척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라이프처치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라이프처치는 이름에 맞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생명(Life)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Identity)이 분명한 교회, 가족(Family)과 같은 교회, 예수를 닮는 훈련(Exercise)이 있는 교회이다.

라이프처치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을 정하게 된 것도 ‘생명과 삶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예배의 명칭도 주일 예배를 ‘선데이 라이프’, 매일 묵상을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부를 만큼 ‘생명이 곧 예배’라는 로마서 12:1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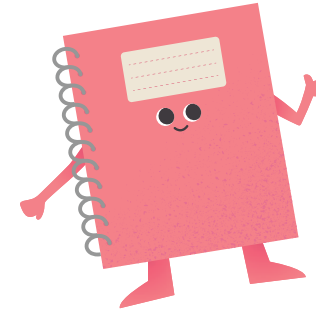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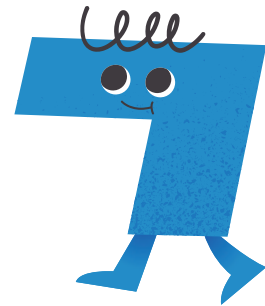
교회를 키우기보다는 사람 키우기에 관심이 많은 유 목사는 “운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찾고 건강과 영성을 회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내비쳤다.

광성드림학교 한국일보, YES24 공동 주최 제21회 전국 어린이 독후감 대회 3년 연속 단체 대상

소년 한국일보와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서점 YES24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전국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서 광성드림학교가 3년 연속 단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약 3,600개 초등학교에서 총 14,527편의 작품을 응모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2021년 단체 우수상과 개인 장려상(5명)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2022년에는 단체 대상과 함께 개인 동상(2명)과 장려상(8명)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도 단체 대상과 더불어 개인 동상(3명)과 장려상(14명)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성드림학교는 단체상뿐만 아니라 개인 동상(1명)과 장려상(13명)을 수상하며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과서 위주의 단편적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넓



고 깊은 이해와 창의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폭넓은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광성드림학교는 세상을 섬기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성드림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인 독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꿈꾸다

광성드림학교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

글 전하빈 학생기자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 광성드림학교의 비전인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의 정신을 담아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학교 협동조합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며 공동의 소유로 운영된다. 또한 조합원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학생 수 증가로 영양사 선생님의 업무가 늘어 간식 업무를 더 이상 하시기 어려워졌고 간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었다. 학생들이 간단한 학교 간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 현재 협동조합은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며, 운영, 기획 실무, 홍보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교육공동체 복지사업'이 있다.

현재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간식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간식을 선정하고 발주하며, 매일 간식이 학생들에 의해 준비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임감을 배우고, 주체적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간식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풀무원, 자담선, 로컬푸드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로컬푸드 이용을 통해 지역 음식물을 소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ㄹ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ㄹ 협동조합 로고



교육공동체 복지사업으로는 나눔 마켓, 생활용품 도소매업,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교육 등이 있다.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학용품과 생활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학생들은 실제 경제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준다.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금을 학생 복지와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고,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자금 마련과 더불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했다. 현재 협동조합의 학생 대표인 정지훈 학생(고등학교 2학년)은 "가온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며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 시작은 작게 출발했지만, 그 비전은 크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날까지 계속될 가온누리의 여정에 기대를 걸어본다.

ㄹ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간식 메뉴를 위한 시식회



ㄹ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협약을 맺었다



ㄹ 지역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견학했다

와이즈 마더, 차미정 집사님

글 우주희 기자



1. 사랑빛2패밀리 임신 축하 사진
2. 가정예배
3. 권사 임직식
4. 헌아기도
5. 기쁨이



지난 9월, 귀한 생명의 탄생 소식이 들려왔다. 이미 세 딸을 키우고 계신 차미정 집사님 댁 넷째 딸 출산 소식이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로 역대 최저였다는데 네 자녀를 키우는 귀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다.

넷째의 임신 소식

어느 날 만난 사촌동생이 임신 생각은 없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와 보니 몸이 으슬으슬해 그 대화를 떠올리며 검사했더니 임신이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과 기쁨이 교차했고, 잘 믿어지지 않았다. 막내의 초등 입학 준비하던 때라 정신이 없었는데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었다. 그 무렵 부부가 섬기던 조이풀 공동체 리더들의 상황이 어려워, 남편 의태 집사님은 아침에 눈 뜨면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미정 집사님 또한 새벽기도를 다니며 부부가 기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름의 기도가 있었지만 임신 소식 앞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새 생명의 탄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

세 아이 모두 임신 기간 중에 위험한 면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았고, 몇 차례 유산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넷째 기쁨이는

임신부터 출산까지가 모두 간증 거리다. 기쁨이를 출산한 후, 안타깝게도 바로 퇴원할 수는 없었다. 산소호흡기로 인해 폐와 갈비뼈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생기고, 백혈구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이었다. 주변 지인들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주신다고 하셨다.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느낀 순간이었다. 결국 공동체의 기도 위에, 또 집사님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이는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이렇게 많은 기도과 축복을 받은 아이인데, 건강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와 함께 자라가는 언니들

기쁨이는 이름 그대로 언니들의 기쁨이다. 세 언니는 유모가 되어 기쁨이만 쳐다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막내였던 유진이가 가장 열성적으로 돌본다.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큰일을 봤을 때는 기저귀, 아기 옷, 수건까지 완벽하게 준비한다. 기쁨이를 돌보며 언니들도 함께 성장한다. 자기가 자랐던 기억은 없지만 기쁨이의 자람을 보며 자신의 성장에도 함께했을 엄마의 헌신을 떠올리게 된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의태 집사님은 가정의 책임감으로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가정예배에서 귀한 고백을 나누셨다. ‘주신 기쁨을 누릴 시기에 감사를 몰랐던 것 같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었다. 미정 집사님은 아이들이 자라가며 감정적으로 부딪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도 감수성이 예민한 딸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라 최대한 조심하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시간 마더 와이즈를 통해 얻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엡 6: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기쁨

미정 집사님에게 양육은 사랑을 주는 일이기에 앞서 사랑을 받는 일이다. 그냥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남편 의태 집사님이 퇴근할 때도 딸들이 달려가 안긴다. 두 분이 귀가할 때, 차량이 도착했다는 알림을 들으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부모님 오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인터폰을 켜놓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부모님 내리는 소리가 나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흥분하며 반겨준다. 그러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은 매일 그 큰 사랑을 준다. 자녀가 넷이니 그 사랑도 네 배로 받는다.

앞으로의 사역과 기도 제목

인근의 부부 목장을 섬기게 되실 것 같다고 한다. 새로운 사역을 맡기 전에 두려움도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거절하는 것도 오만처럼 느껴져 일단 순종하신다는 집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기쁨이가 탄생하고 이 아이를 오래오래 지켜보려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과 가족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부를 얼마나 신뢰하시면 넷째까지 주셨을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믿는다.



시니어의 삶은 ‘인생 2막’이 아니라 ‘1막 2장’입니다

운정진로성장연구원 원장 이양순 권사

글 임보미 기자

우리 사회 노년층이 ‘실버’에서 ‘시니어’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실버’라고 하면 멋진 은발의 노인을 떠올리게 되지만 한편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쇠약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니어’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 다음세대에게 모범이 되고 본받고 싶은 ‘인생 선배’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시니어의 일과 삶은 어떤 모습일까? 교사로서의 인생 1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운정진로성장연구원 원장 이양순 권사를 만났다.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했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이양순 권사는 28년간 평교사로, 12년간 교감과 교장으로 총 40년을 교단에 선 베테랑 교육자였다. 교사 재직 시에는 지역에서 유명인사가 될 정도로 열정적인 교사로 헌신했으며, 예술적 재능을 살려 화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자신을 만나 변화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은퇴 후에는 진로상담 전문가로 변신, 진로성장연구원을 설립해 2017년부터 심리상담과 코칭, 진로상담, 예술교육, 인문 고전 독서교육 등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와 성인까지 교육하는 성장코치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 파주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들을 1,000시간 넘게 상담하면서 지치기보다는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더 큰 보람과 에너지를 얻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시간이 모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한다. 재직 중에도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배움을 이어왔고, 은퇴 후의 인생을 준비할 때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일 사이의 고민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나의 기질에 맞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세요.”

그가 생각하는 시니어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이다. 높은 연륜과 경험을 활용해서 필요한 역량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직업을 바탕으로 2차 직업의 범위를 구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업계 종사자는 방과 후 학교 등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활용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나이와 관계 없이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 2막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나의 기질을 알고 그것에 맞는 일을 해야 오랫동안 지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전 직업과는 다른 일을 찾기 원한다면 돈벌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성취감이 더욱 크기에, 새로운 삶을 위해 활기치게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된답니다.”

인생이라는 한 폭의 수채화를 자신만의 아름다운 결로 물들여가고 있는 이양순 권사. 담담하지만 강단 있게 전한 그의 인생 이야기에는 일과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본받고 싶은 지혜가 가득 담겨 있었다. 교사 시절엔 제자인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한결같은 인생의 궤적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시니어의 인생은 ‘2막’이 아닌, ‘1막 2장’과도 같을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관 교육 수업 장면



교실에서는 학생의 창작활동을 중시하는 교사였다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넘어 아픈 세계 바라보며 ‘MAGA with the World’가 되기를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발전 전공)

“한국은 현금 기계예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죠.”

“러우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관세, 국제전을 두고 공언하듯 표현한 문구들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트럼프가 2024년 미 대선에서 물가상승과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고전했던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4년 미 대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연이어 나섰던 이전 대선에서보다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비교적 개표 초반부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16명, 펜실베이니아에서 19명으로 5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남부 및 내륙 대부분의 주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동부와 서부 해안 외에 ‘블루월(Blue Wall: 민주당 텃밭)’ 중 하나로 알려졌던 중서부의 러스트벨트(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지의 과거 제조업 중심권역)에서도 이전 대선에서보다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관세를 높여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분을 보전’하는 한편 관세율과 지정학적 관계를 협상카드로 내세워 제조업 등 투자(유치)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트럼프 2기에선 방위비 분담금, 무역·관세, 환율, 금리·통화, 산업, 고용·이민 등과 관련해 경제정책 기조에 다음과 같이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그의 공적 발언을 고려할 때 현재 1조 5천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트럼프는 협상 시 카드로 방위비를 넣는 100억 달러(13조 원 이상)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특히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미 대선 당일 트럼프의 우세 소식에 따라 환율이 25원의 변동 폭을 보이며 상승해 1달러당 1,399원까지 이른 점에서 드러나듯,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구호로 내세웠던 트럼프 1기에 이어 ‘MAGA’를 내세운 트럼프 2기에는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이는 다만 한국의 수출에는 유리해서 관세(율) 상승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넷째, 비록 트럼프의 당선 이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추가적 금리 인하를 시사했으나 최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펼쳐온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연준의 0.5%p 금리 인하의 속도 역시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국채와 시장 금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과 국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이민 제한 및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감세 기조로 인해 세입은 일정 부분 줄고 연방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격한 관세율 상승으로 수입품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국은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다섯째, 산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인센티브,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시국 이후 펼쳐온 확장적 재정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JJ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을 펼치며 중국 등을 견제해 왔다.

그러나 이전에도 파리기후협약을 갑작스레 탈퇴한 바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를 포함한 전통적 에너지원에 훨씬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미래 인공지능과 생산성의 첨병인 반도체의 경우 엔비디아(nvidia) 같은 미국 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들은 지원하는 반면,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범위나 시기 등이 조절 또는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각각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파운드리 설비 투자 중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차 전지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크고 작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대미 무역흑자의 주역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관세율 인상이 단행될 경우, 역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방위산업, 금융업, 그리고 트럼프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가상화폐 등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차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과 금융업에 국한된 것으로, 환율·금리,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국내 조선업의 경우에는 미 해군 함정 건조·MRO 능력 한계로 우리나라에 협력 가능성을 트럼프가 당선 직후 언급한 점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고용과 이민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인 불법 이민자 추방과 이민 제한은, 결과적으로 제한적 성공이었지만 최근 IJJA와 이민 확대로 일자리를 확충하여 고용률을 유지하고 치솟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압력을 낮추고자 노력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논한 관세율 인상과 재정적자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획기적인 고용 및 산업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저금리 기조 하에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지속적으로 최근의 한 번에 0.5%p와 같은 파격적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향후 금리의 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고 민간의 산업 및 자산 투자 역시 이상의 여섯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인도적으로 더욱 중요한 한편, 불확실성은 훨씬 큰 전쟁과 전투가 그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없다면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수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낳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가며... ‘MAGA with the World’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기획 임보미 기자

1. 김정숙 권사님은 이나미 권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열방기도팀 이나미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광성교회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직분, 신앙의 연수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초신자처럼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한 것이 중보기도학교였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때에도 수료 후 열방기도팀에서도 이나미 권사님과 함께 묵상을 나누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항상 믿음과 삶의 괴리에서 허덕거리던 저는 이나미 권사님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 아프고 힘들었지만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내 열심과 내 의로 충만한 저의 신앙생활에 제동을 걸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묻고 씨름하는 시간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은 권사님이 부럽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를 드실수록 더 깊은 영성과 사랑으로 더 해가시는 권사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제 인생에 멘토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권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이나미 권사님은 홍희란 장로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홍희란 장로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쓰러지면서 버스 안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다 주셨다는 이야기를 깨어난 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저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



⋈ 김정숙 권사와 이나미 권사



⋈ 이나미 권사와 홍희란 장로



⋈ 홍희란 장로와 정호석 장로

했고, 빠르게 대처해 준 덕분에 큰 부상 없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25년간 장로님과 같은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 정말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 장로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3. 홍희란 장로님은 정호석 장로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정호석 장로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중보기도팀에서 섬기다가 중보기도 전문 장로로 추대되어 중보기도위원회에서 6년간 중보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내의 기도제목뿐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기도회와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도회 등 많은 열매가 있었지요.

6년의 임기를 마친 후 이 사역을 이끌어갈 후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박승현 목사님께서 정호석 장로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교육부서에 몸담고 계시며 부장으로, 교육부 위원장으로 섬기셨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등 교육과 관련된 중보기도 모임에 늘 함께하셨던 분이었어요. 섬김의 마인드와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기도의 능력까지 갖추신 장로님이 중보기도위원회를 섬겨주시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매 주일 중보기도회를 이끄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석 장로님, 장로님 덕분에 중보기도위원회 사역이 힘있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4. 정호석 장로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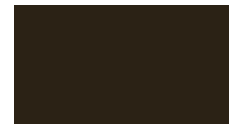
카페 올리브향기 & 풍경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장애인과 새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거룩한빛광성교회 장터사회적협동조합.

교인과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장터 산하의 두 카페 ‘올리브향기’와 ‘풍경’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원두를 로스팅합니다. 다양한 음료와 샌드위치 맛집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발한 올리브향기와 풍경 카페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만나 보세요.





청년광장



 YouTube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scn





1



2



3

1. 1청년부 박지현 팀장
2. 3. 의진 셀

거룩한빛광성교회 1청년부 셀 리더 인터뷰

글 김다빈 청년기자

김다빈 오늘은 1청년부 팀장님과 2025년에 리더로 섬기는 청년 네 분을 모시고 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청년부 셀모임에 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현 팀장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청년부 팀장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나이에 따라 1, 2, 3청년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청년부는 20세부터 28세까지, 2청년부는 29세부터 35세까지, 3청년부는 36세 이상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청년 모임에는 팀장과 셀 리더가 있으며, 한 명의 셀 리더가 1년 동안 셀모임을 이끌어 갑니다.

김다빈 지현님이 생각하시는 셀모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현 팀장 저는 셀모임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다시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셀모임은 나눔을 통해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배로 경험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셀모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다빈 2025년에는 새롭게 리더가 된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25년 리더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팀장 리더들 모두 결국에는 '한 청년'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역할과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청년으로 누릴 수 있는 모임의 시간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4년 한 해 수고해 준 리더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해였는데, 모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다빈 지현 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음으로는 2024년을 함께한 1청년부 리더 두 분과, 2025년 새롭게 섬기게 된 리더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진, 주영 리더님! 두 분께 2024년도 셀모임의 특별한 기억을 묻고 싶어요.

한의진 저희 셀에서는 2024년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청년들이 함께 사랑 어린이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인원이 모이더니 많은 셀원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워십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부에서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문득 제가 2024년 셀 리더를 시작하며 "나는 우리 셀이 셀원들을 섬김의 자리에 파송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잊고 있던 고백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이루심에 감사했습니다.

박주영 저는 특별히 두 달간 평일에 2~3번씩 교회에서 모여 셀원들과 큐티 모임을 가진 시간이 기억납니다. 찬양, 묵상, 나눔을 통해 각자의 신앙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큐티를 처음 접해본 청년도 있었고, 이후에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큐티를 시작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을 셀 공동체가 함께 내디딜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김다빈 이번에는 2025년을 함께 할 새로운 리더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수님! 어떻게 리더로 섬기기를 결심하셨나요?

이중수 이전 셀 리더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리더로 섬기기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2024년도 셀을 통해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새로 오는 셀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도와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네 분의 리더분들을 통해서 리더들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1청년부 리더들과 각자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리더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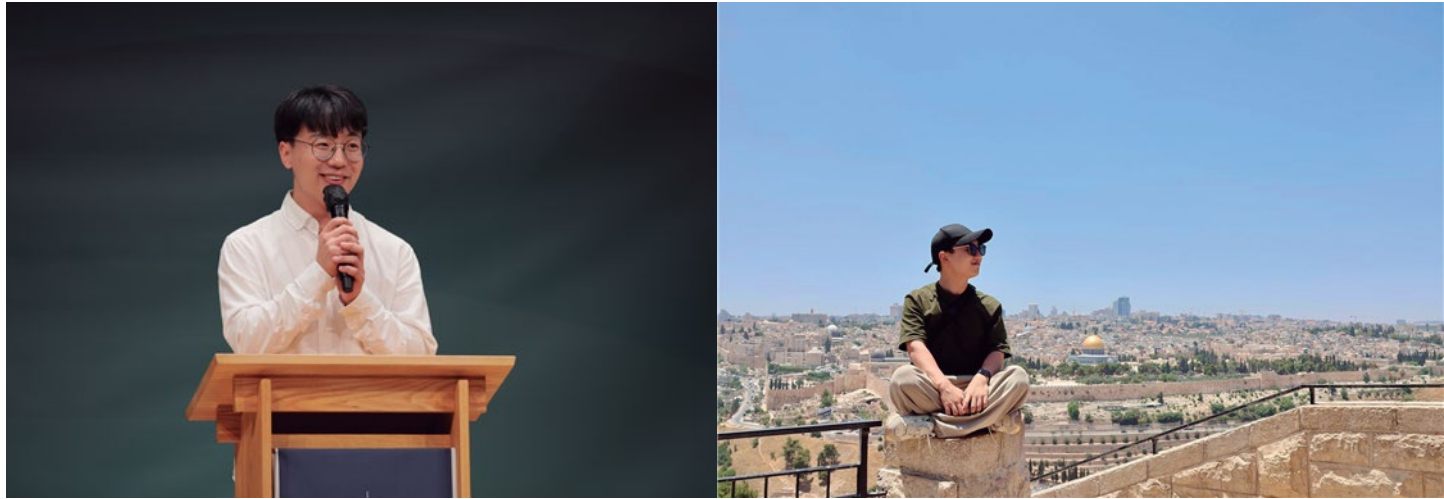


5

4. 5. 주영 셀

2025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으며 ‘함께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

글 김요한 청년



⌘ 회장 선거 당선 현장

⌘ 청년부 이스라엘 성지순례

2025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김요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꾸준히 섬김의 자리로 나갔지만 이렇게 청년부를 대표하는 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2020년 초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되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과 가정을 지키며 묵묵히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보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공동체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보내고자 청년부 새가족팀 섬김을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까지 청년부 양육팀 팀장으로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교제하며 믿음의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내년도 청년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일상이 되어 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섬김에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청년부가 서로와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1청년부 리더십 MT

⌘ 청년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단체 사진

특히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이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연령에 따라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팀 모임과 셀 모임은 각 청년부끼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동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각 청년부가 아닌 하나의 청년부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에 겪는 진로, 취업, 결혼, 신앙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청년부 공동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청년부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청년부 팀 모임 단체 사진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3주 세미나 간증문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말씀 중심으로 균형 잡힌 기도를 하자!

3주 동안 진행되었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세미나의 간증문 세 편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이미경 사모가 진행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세미나 참가자들은 매일 정해진 각자의 시간에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주어진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짝과 함께 정기적으로 매주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이 맡겨주신 배우자와 자녀와 세상을 위해

말씀 중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말씀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강사 이미경 사모와 스텝



말씀 나눔, 맛있는 디저트를 함께 먹는 것 같은 기쁨!

글 임방글 집사

시간을 들여 매일의 만나인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며 십자가에 나를 내어 드리고 부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가는 말씀 묵상은 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분주한 일정에 때로 말씀 앞에 긴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이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지 불확실할 때도 분명 있었다.

그런 고민과 염려가 들 때, 기도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게 하는 달콤한 디저트같은 시간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기도’였다. 간혹 말씀 한 구절 그 자체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 너무 은혜로웠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루는 나를 위해, 하루는 배우자를 위해, 다른 날들은 자녀들을 위해 말씀에 그대로 이름을 넣어 기도하는 시간. 다시 그 말씀을 확장해서 삶의 문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말씀 한 구절을 몇 번씩 곱씹게 되는 것이 큰 유익이었다. 말씀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니 그날 하루를 살아가며 절로 말씀이 기억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말씀을 통한 나눔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맛있는 디저트를 나눠 먹는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녀들이 몸담은 학교 현장의 충격적인 영적 전쟁들을 목격하고 있던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학생 선교사로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서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사역의 짝기도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속한 공동체와 그곳의 동역자나 권위자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니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아직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 훈련이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

글 고은수 집사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기도.’ 이 제목 앞에 고민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향의 시간을 지나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내 안에 쌓인 말씀이 없고 그 때문에 기도는 하면서도 그저 나의 필요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세미나 후 일대일 짝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으나 일대일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또 다를 것 같아 설렘이 생겼습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짝기도를 시작하며 매일의 묵상도, 일대일의 기도도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은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주에 남편의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 둘째 주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셋째 주가 되니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이렇게 없었나 고민하다 직장 내에서도 부서를 위해, 그 안의 팀을 위해, 어느 날은 상사를 위해, 또 동료들을 위해 시간이 지나며 점점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찾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친구들도 공동체로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은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위해, 또 그들 가운데 남편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로 영혼들을 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교할 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날마다 동일해서 때로는 하루의 무사와 평안을 바라는 주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기도를 시작하며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오늘의 구절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내용이 달라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훈련되지 않으니 막막하고 부담이 있었던 저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와 어느덧 일상에 스며들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지체들이 제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으며, 성도들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마음 쓰시며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사모님과 저의 짝공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깊은 교제와 기도로 함께해 준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이끌어가는 하루

글 김진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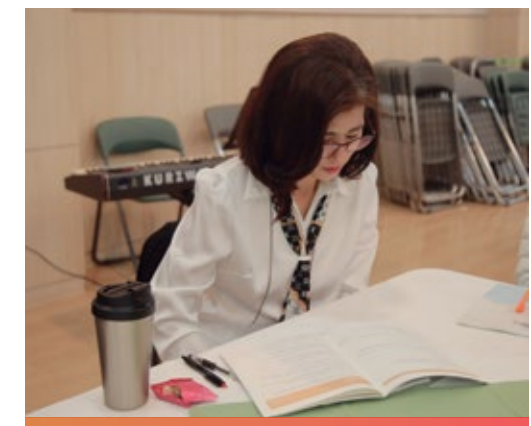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기도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기도’ 세미나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기간이 3주라고 하여서 부담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사모님께서 3주간에 걸쳐 성경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이름을 넣어 성구기도를 하고 나와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가족의 공동체(직장, 학교, 사역 등)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짝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재를 주셨습니다. 교재는 한 권당 총 12주 분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일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해진 짝과 함께 카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구기도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짝과 만나서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공동체, 공동체의 권위자(동역자,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의 분량은 부담되지 않게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가끔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쉬운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기도 했고, 인터넷으로 관련된 설교문을 검색해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니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짝을 만나서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성구 확장기도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훈련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짝에 대한 중보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뜨거운 중보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공동체와 공동체의 동역자, 권위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더 깊이 학교와 주일학교 그리고 친구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2주 동안 서로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끝나고 보니 짝과 저에게 각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너무 귀한 교재를 만들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팀’과 이미경 사모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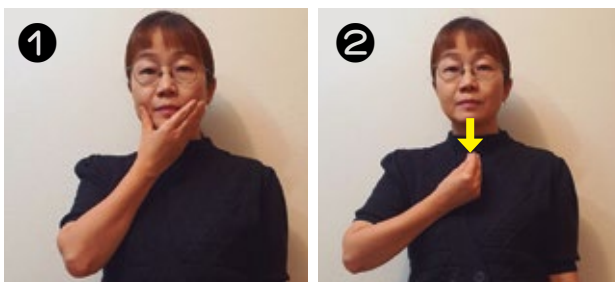


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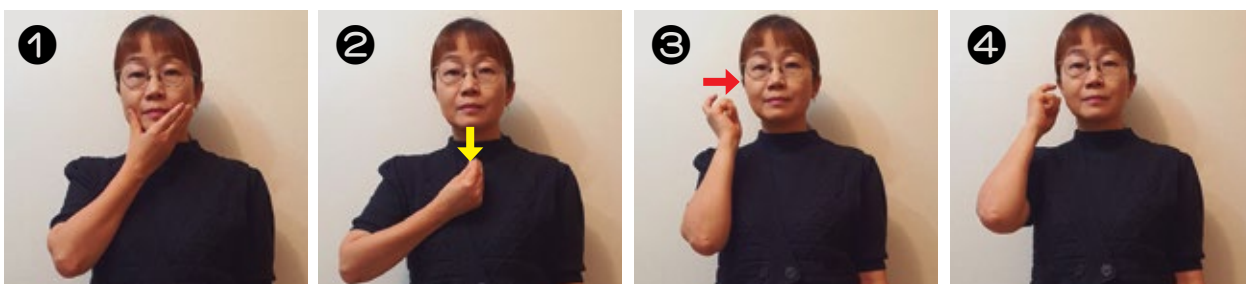
수어통역 장현정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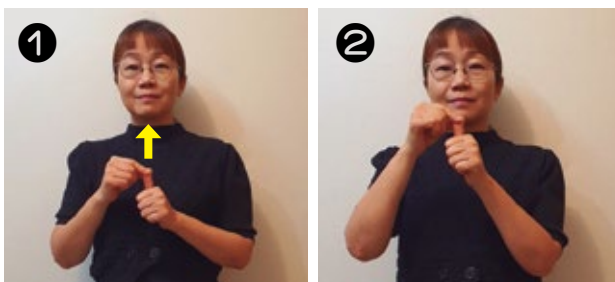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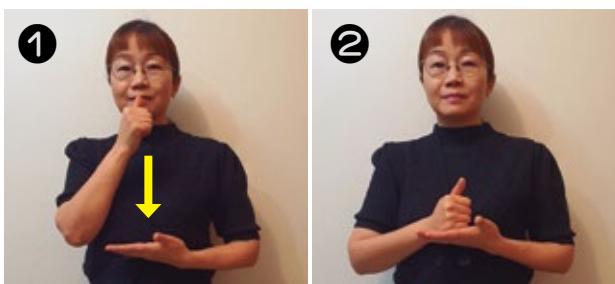
복음



구원



죄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문화 & 독자 마당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양평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경의선 안.
맞은 편에 앉은 두 여인은 내내 핸드폰에만 눈길을 주었습니다.
어디서나 핸드폰만 바라보는 현대인의 일상을 그려봤습니다.

황인녀 作



2부 성가대 팀파니 연주자 정용수 집사

글 김형수 기자



1. 팀파니를 만난 계기

고등학교 시절 드럼의 매력에 빠져 밴드에서 연주하게 되었고 당시 밴드를 통해 나를 무언가로 채워보고자 했던 열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열정이 생겼고 눈만 뜨면 드럼이 생각날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 팀파니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팀파니를 전공하고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팀파니에 대한 소개

팀파니와 같은 북 계열의 악기는 음정이 없는 악기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파니는 음정이 있는 타악기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마림바와 실로폰처럼 다양한 음을 자유롭게 구사할 순 없고 낼 수 있는 음이 한정되어 있지요. 하지만 음정이 없는 큰북이나 작은북과 달리 음정이 있기에 음악의 리듬적인 부분이나 화성적인 부분까지 담당합니다.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의 저변을 받쳐주고 리듬을 통해 음악의 뼈대를 심어주는 악기입니다. 흔히 팀파니를 오케스트라에서 제2의 지휘자라고 하는데 이는 팀파니가 템포를 결정하고 리듬이 빠르거나 느려지지 않게 뒤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팀파니가 빠진다면 음악은 뼈대와 받침 없이 공중에 붕 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팀파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케스트라 뒷자리에 있다가 잠깐씩 동동 소리를 내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만약 연주자의 동작을 급여로 계산하는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현악기는 활

한 번 그을 때마다 10원이고 팀파니는 한 번 칠 때마다 만 원일 것이란 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처럼 시종일관 소리를 내는 현악기나 그 밖의 다른 악기에 비해 팀파니는 연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팀파니는 심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른 악기와 달리 팀파니는 연주하지 않을 때도 악기를 수시로 조율해야만 하기에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3. 팀파니의 매력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악기가 독주 부분을 연주할 때 빛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팀파니 악기의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셈여림을 통해 긴장감이 넘치는 서스펜스를 연출하거나 극적인 드라마로 독주를 연주할 때가 팀파니의 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저는 ...

현재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광성아카데미 오케스트라, 교회 양상불과 지역사회 문화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연주를 통해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연주활동

-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부활절 칸타타 연주
-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주
- 찾아가는 연주회

덕양 화정교회, 일산 가좌교회, 송추 일영교회, 김포 불로교회, 거북한빛온정교회, 등촌동 밀알교회, 파주시문산사회복지관, 중국동 신일교회, 서울 산정현교회

네 명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는 활기찬(?) 집

글 배재영, 김한나

첫 만남

재영 아직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의 아내는 하늘색 꽃무늬 민소매 원피스에 빨간 머리로 만남의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워낙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첫 만남의 자리에서 제 이야기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 음악은 왜 시작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첫 만남에 군대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 시간 내내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고 궁금해하더라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들어주기 좋아하는 사람의 조합이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비록 8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말하기 바쁜 네 명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는 활기찬(?) 집이 되었지만.

한나 음, 저의 이상형이 웃는 모습이 예쁜 남자인데, 남편은 너무 환하게 웃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2남 1녀 중 가운데 낳은 외동딸이어서 언제나 아빠 울타리에서 화초처럼 잘 지내왔죠. 순박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거죠.~ 세상 경험도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지 몰랐고요:)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넷이서

일곱 살과 다섯 살 된 두 아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피로가 모두 사라집니다.

찬양대에서, 조이풀 목장 리더로

2024년은 저희 부부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이 맡겨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되었고 저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3040 조이풀 목장의 리더로 섬기게 되었고 또 중창단에도 들어가게 되



었습니다. 사실 2024년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늘어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니 참 좋아!

저희 부부는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바로 가지게 되면서 같이 함께하는 봉사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함께하는 활동으로 어웨이크 중창단에 들어갔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오색 음악제를 준비하면서 어웨이크 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어웨이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그리는 노후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저는 베이스 기타로 금요철야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장르는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이것들을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엄마는 피아노, 아빠는 베이스 기타, 아들들은 드럼과 노래로(혹은 기타로) 노방찬양을 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꿈입니다. 캠핑카를 타고 발이 멈추는 곳에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꿈꿔 볼 만한 노후인 것 같아요. 아직 7살, 5살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설득해 봐야죠! 너네는 어떤 악기로 찬양할래?

여유로운 새해, 따뜻함과 함께 경복궁에서 시작

글 & 사진 고예님 청년기자

새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우다가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와 잠시 경복궁에 다녀왔어요. 경복궁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늘은 경복궁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에 관해 소개해 드릴게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경복궁

1. 경복궁

경복궁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날이 제가 갔던 날 중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경복궁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끊으셔야 해요. 경복궁 밖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하실 수도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경치를 더 많이 관람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곳은 '근정전'이었어요.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궁중 연회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른 곳인데 이곳에만 가면 웅장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정전뿐 아니라 더 많은 곳이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관람하는 것보다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면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거든요.

11월부터 2월까지의 관람 시간은 09:00~17:00인데, 같이 관람하시는 분들 중에 18:00로 착각하신 분도 계셨어요. 동계와 하계 관람 시간이 다르니까 혹시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억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메종드그루 카페

경복궁 관람을 마무리하고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메종드그루' 카페에 방문했어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주로 마시는데 메종드그루가 찻집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카페에 방문하자마자 좋았던 것은 1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1인석 뒤에는 3~4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마신 차는 메밀차인데 사장님께서 차를 내주실 때, 귀여운 주전자와 함께 모래시계를 주시더라고요. 모래시계 의미에 관해 궁금해서 사장님께 여쭙았는데 3분 동안 차를 우리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의 모래



창밖으로 경복궁 돌담이 보이는 뷰를 가진 메종드그루 카페

시계를 통해 아날로그의 매력을 느끼면서 따뜻한 차를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모래시계뿐 아니라 카페 내부의 분위기였어요. 메종드그루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따로 사용하지 못해요. 제가 갔었을 때도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만 있었고 노트북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타자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더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었어요.

70년 전통의 칼국수 맛집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일품인 칼국수와 자꾸 손이 가는 부드러운 수육

3. 대선칼국수

경복궁 경치를 열심히 관람한 후, 허기짐이 찾아와서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대선칼국수' 가게에 방문했어요.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서촌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다른 곳과 달리 입구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가게 안까지는 계단으로 올라오셔야 해요. 계단을 통해 올라갈 때, 벽면에 붙여진 유명인 사인들을 보고 맛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메뉴는 다양하게 있었고, 메뉴 고민을 계속하다가 따뜻한 칼국수와 함께 1인 수육을 시켰어요. 제 앞에 단체 손님이 계셨는데도 생각보다 음식이 빨리 나와서 놀랐고, 양도 많았어요. 멸치육수를 사용한 칼국수는 깔끔하고 칼칼한 맛이 느껴졌고, 동시에 칼국수에 올라간 썩갠 향도 느껴져서 맛있게 먹었어요. 1인 수육도 고기 살이 부드러웠고, 부담 없는 양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7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경복궁 코스에 관해 소개해 드렸어요. 여유로운 시기에 잠시 경복궁에 가서 멋진 감상을 하시고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오시는 거 어떠신가요? 주요 행사 일정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더 멋진 관람을 하실 수 있어요.

밤가시 시대를 열다

글 김진옥 권사

1997년 1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밤가시마을에서 일산광성교회(현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던 정성진 목사에게 김창인 담임목사는 개척을 권유했고, 개척 자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했다. 교회명이 거룩한빛광성교회로 바뀌게 된 것은 덕이동 예배당으로 옮기고 난 이후이다.



⌕ 교회 전경

◇ 시온찬양대



일산신도시가 들어서고 안정기에 들어설 때라 이미 교회 수가 많았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첫 주일예배에 51명이 출석했고, 한 달 후에는 157명이 출석하는 놀라운 성장을 했다. 교인 수의 증가에 따라 예배의 모습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찬양대(시온)를 결성했으며 주일성경공부와 수요성경공부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경배와 찬양' 집회도 시작했다. 교육부서도 아동부와 고등부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6월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결성되었고, 교회보 『광성겨자씨』도 발간했으며 작은도서관도 문을 열었다. 사랑의 바자회를 통한 지역 섬김이 시작되는 등 불길처럼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매 주일 등록하는 성도가 있었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밤가시마을을 지나면서 일산광성교회를 보았지만 '이름도 참 촌스럽네!' 하곤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부문학교실을 수강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교우들과 교제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배에도 출석하게 되었고, 기도가 절실했던 나는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며 교회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그리고 1998년 9월, 나는 일산광성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

손주 3남매와 눈

글 & 사진 최정애



눈이 펄펄 쏟아지던 2023년 겨울 어느 날, 더운 나라에 일하러 나가 있던 아들이와 며칠 머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본 손주 3남매는 좋아 펄쩍펄쩍 뛰며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한참을 눈싸움도 하고 끽끔거리며 눈을 뭉치며 씨름하더니 큰 눈사람을 만들고는 서로 자기 눈사람이 더 크고 멋지다며 뽐내고 즐거워했습니다. 나도 그 모습을 놓칠세라 그동안 조금씩 배워 왔던 카메라를 꺼내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손주들은 내린 눈으로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담는 나는 귀여운 손주들 모습에 더 행복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기를 기도하면서...

독자 사진 이벤트

‘우리 가족의 추억’을 주제로 독자 사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택된 사진과 사연은 봄호 『겨자씨』에 소개되며, 소정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 :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 3~4장 & 사연 5~6줄

참여 기간 : 2월 5일까지

보낼 곳 : jye3315@naver.com



알파 코스 개설과 정성진 목사님 한국기독교대상 수상

글 손민준 목사

알파(ALPHA) 코스 개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에서는 2024년 10월 5일 초대 만찬을 시작으로 주변 미자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파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0월 10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형 교회의 프로그램에 마음 놓고 성도들을 보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작은 교회의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다시 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알파 코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사람들, 새롭게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알파 코스에는 12교회, 39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점옥 사모님께서 주 강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알파를 통해 주변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서로를 축복하는 알파 코스 참가자들



◀ 알파 강사 송점옥 사모

☞ 기독교대상 수상 소감 발표



제1회 '한국기독교대상(大賞)' 수상 소식

제1회 '한국기독교대상(大賞)' 특별목양부문에 정성진(크로스로드) 목사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총장포럼(이사장 고신일 목사, 회장 정상운 성결대 명예총장)은 23일 "준비위원회의 3회에 걸친 엄정한 심의를 통해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기독교대상 후보자 100인 중에서 최종 수상자 6인을 지난 9월 6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10월 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홀(20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전·현직 기독교 총장들이 한국교회를 발전시키고, 한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롭게 회복하고자 대학총장포럼을 결성했습니다. 한국기독교대상은 대학총장포럼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힘 있고 바르게, 또 모범적으로 이끌고 간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선발해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상이라고 합니다. 이날 정성진 목사님은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귀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5 NEW YEAR
VOL.53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53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박승현

발행일 : 2025년 1월 5일

인쇄 : 천광인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최아인, 태경환, 전하빈

청년부 취재기자 : 고예남, 김다빈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임보미

사진기자 : 이종수

편집 : 김형수, 임보미

책임편집 :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OPEN!

2024.04.08 자유로점 오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확하자마자 바로 식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육 · 즉석반찬 및 즉석두부
제철과일 을 함께 만나보세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74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1층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TEL: 031)906-8701

금용점포 ■ 본점 975-8061 ■ 풍산지점 906-3234 ■ 산돌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강촌지점 932-806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탄현북지점 916-8061
■ 풍산역지점 977-8062 ■ 킨텍스역지점 918-8061 **경제사업소** ■ 영농지원센터 907-0252 ■ 제1·2농기계서비스센터 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975-8701 **로컬푸드** ■ 로컬푸드 풍산점(1호점) 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2호점) 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3호점) 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4호점) 918-8161 ■ 로컬푸드 자유로점(5호점) 906-8701 ■ 로컬푸드 민마루점(6호점) 추진중